

# “목표는 가을야구...가까운 ‘형’ 같은 감독 되겠다”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 취임  
명문 구단 사령탑 영광·책임감  
지속적인 강팀 기초 세울 것  
몸 사리는 플레이 용납 안해

“대화를 많이 하는 감독, 선수들과 가까운 ‘형’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KIA 타이거즈 제10대 사령탑 김종국 신임 감독(49)은 6일 광주 기아오트랜드 대강당에서 공식 취임한 뒤 기자회견에서 “구단으로부터 지속적인 강팀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초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KIA 타이거즈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 2009년 은퇴할 때까지 타이거즈 유니폼만 입은 ‘원클럽맨’ 김종국 감독은 지난해 12월 5일 KIA 지휘봉을 잡았다.

현역시절 견고한 2루 수비와 기민한 주루 센스를 뽐낸 김 감독은 KIA와 국가대표팀에서 주루·작전 코치를 맡았고 특히 지난해엔 KIA 수석코치를 지내 시야를 넓혔다.

김종국 감독은 “30년 가까이 몸담은 명문 구단의 사령탑에 올랐다는 것이 큰 영광이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결과를 미리 걱정해 몸을 사리는 플레이는 용납

하지 않는다. 모든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할 것이다”면서 “팀 분위기와 방향성을 잡고 전력을 다해 훈련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 대해 김 감독은 “1996년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했을 때보다 더 설레고 긴장됐다”면서 “팀이 해태에서 KIA로 넘어갈 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감개무량하고 감정이 벅찼다”고 말했다.

이어 “팀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또 KIA에 오래 있다 보니 선수들의 장단점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알고 있다. 선수들과 가까운 ‘형’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서 “월리엄스 전 감독님이 있을 때 통역으로 소통하다 보니 감정 전달이 쉽지 않았다. 대화를 많이 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KIA의 최종성적은 9위였다. 올 시즌 목표를 포스트시즌 진출로 잡은 김종국 감독은 “양현종이 돌아오면서 선발 투수진이 안정화됐다. 외국인 선수 구상까지 마친다면 선발 로테이션은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현식과 정해영 등 여러 선수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투수진이 작년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 타자 부분에서는 최원준의 공백이 있지만 나성범이 자리를 메웠다. 올해 성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나성범이 주전으로 뛰는 것은 거의 확정이다. 나머지 좌익수 자리는 누가 주



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기아오트랜드 대강당에서 열린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취임식’에서 (왼쪽부터)최형우 선수, 김종국 감독, 장정석 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인이 될지 모른다. 시범경기까지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최준영 대표이사, 장정석 단장을 비롯한 일부 프런트와 선수 대표 최형우가 참석해 김종국 감독을 환영했다.

최준영 대표이사는 김종국 감독에게 유니폼을 전달했고 최형우와 장정석 단장은 김 감독에 꽃다발을 안기며 새 출발을 바랐다.

/조혜원 기자

## 프로야구 4월 2일 플레이볼

### KIA, LG와 홈 개막전

2022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4월 2일 개막한다.

KBO는 6일 2022 신한은행 솔(SOL)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은 올해 프로야구는 4월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 팀이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를 치른다.

개막전은 2020년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팀 홈경기로 편성했다.

단, 서울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각각 2위와 4위로 2020시즌을 마쳐 4위 LG 대신 6위 KIA 타이거즈가 올해 홈에서 개막전을 한다.

2020년 챔피언 NC 다이노스가 홈 창원NC

파크에서 SSG 랜더스와 맞붙고, 잠실에선 두산과 한화 이글스가 격돌한다.

서울 고척스카이돔(롯데 자이언츠-키움 히어로즈),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삼성 라이온즈-kt wiz),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LG-KIA)에서 4월 2일 개막전이 열린다.

김종국 KIA 신임 감독은 광주 홈에서 ‘사령탑 데뷔전’을 펼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년(2020·2021년) 연속 열리지 않은 올스타전은 7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KBO와 10개 구단은 앞서 발표한 ‘국가대표팀 중장기 운영 개선안’에서 아마추어 주관 국제 대회인 경우 대회별로 ‘맞춤형 선수’를 보내기로 하고, 정규시즌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광주FC 미드필더 문상운 영입

#### 패스·탈압박·원발 강점

광주FC가 베테랑 미드필더 문상운(30)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문상운은 대건고와 아주대를 거쳐 2012년 우선지명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 26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데뷔 첫 해부터 주목을 받았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12경기를 소화한 2014인천아시아게임 금메달 멤버다.

올해 프로 11년차를 맞은 문상운(179cm 70kg)은 날카로운 원발력과 탈압박,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난 공격형 미드필더다.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측면 공격수까지 가능한 멀티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문상운은 전북과 제주를 거쳐 2018년 성남



문상운

으로 팀을 옮긴 뒤 두 시즌간 이창호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후 서울이 랜드로 이적, 통산 198경기 16골 21도움을 기록했다.

문상운은 “이창호 감독님이 나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베테랑으로서 무게감을 느낀다”면서 “감독님과 성남에서 팀의 승격 및 1부리그 잔류를 이뤄낸 바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팀의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 ‘도쿄 양궁 3관왕’ 안산 세계랭킹 1위 등극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2021년 연말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6일 세계양궁연맹(WA)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모든 대회 성적이 반영된 연말 랭킹에서 안산은 리커브 여자 개인전 1위에 등극했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 이어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따낸 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랭킹이 동결되기 전인 2020년 4월보다 랭킹을 4계단 끌어올려 1위에 올랐다.

이밖에 강재영(현대모비스)이 8위, 장민희



안산

(인전대)가 16위에 자리했다.

리커브 남자 개인전 랭킹에서는 브래디 엘리슨(미국)이 1위, 도쿄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메테 가조즈(터키)가 2위에 자리한 가운데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가장 높은 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6일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인천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경기. 광주도시공사 송혜수(23)가 인천시청 신다래 파울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코리아 개막전 승리

### 12골 강경민 앞세워 25-23 인천시청 제압

광주도시공사가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6일 서울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여자부 인천시청과의 경기에서 25-23으로 이겼다.

2시즌 연속 득점왕과 MVP를 차지했던 강경민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다. 강경민은 고비마다 득점 물꼬를 트는 등 12골을 성공시키며 광주도시공사의 승리를 견인했다.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입은 송혜수도 이날 4득점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초반 인천시청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이 풀리지 않았고 후반 초반 원선필이 퇴장당하면서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듯했으나 2년 연속 호흡을 맞춘 선수들의 조직력이 짜릿한 첫 승을 만들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경기 초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첫 득점이 전반 7분에서야 나왔을 정도다.

인천시청 김선화, 김은아에 득점을 허용하며 끌려가던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7분 강경민의 7m 드로가 성공하면서 득점 물꼬를 텄다. 전반 중반까지 원선필이 두차례나 2분간 퇴장을 당하는 등 인천시청에 끌려가던 광주도시공사는 베테랑 골키퍼 손민지의 선방에 힘입어 공격에 탄력을 받았다. 전반 16분 송혜수의 득점으로 4-6, 2점차로 따라붙은 광주도시공사는 22분 강경민의 속공 득점으로 9-8 역전에 성공했다. 29분 11-11로 다시 동점을 허용하는 듯 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강경민이 버저비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2-11, 1점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7분 14-14 한차례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곧바로 송혜수가 얻어낸 7m 드로로 강경민이 성공하며 15-14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 내내 앞섰던 광주도시공사는 막판 위기를 맞았다. 후반 28분 23-23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인천시청의 잇따른 턴 오버를 놓치지 않았다. 후반 29분 김지혜의 백스 성공에 24-23으로 다시 앞섰고 경기 종료 4초 전 강경민이 다시 한번 인천시청의 골망을 흔들며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이날 MVP로 선정된 강경민은 경기 종료 후 “첫 경기여서 긴장되고 부담도 됐다. 연습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첫승을 거둬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선수들 모두 실수 없이 하려고 노력했던 게 잘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8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 시즌 두번째 경기를 갖는다. /최진화 기자